

Aviva Rothman. *The Pursuit of Harmony: Kepler on Cosmos, Confession, and Community*.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7. 355 pp.

김수지†

SF 최고 권위의 휴고상을 수상한 류츠신(劉慈欣)의 소설 『삼체』에는 현대 천문학 지식을 활용하여 천체 운동과 그에 따른 기후 변동을 예측하는 가상 현실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학자들이 등장한다. 게임 속 과학자들의 목표는 문명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실패를 반복하고 문명은 거듭 절멸에 이른다. 소설 속에서 이 게임을 설계한 것은 “삼체인”이라 불리는 외계인들이다. 이들은 삼중성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위에 세워진 자신들의 문명이 얼마나 취약하고 불안정한지 지구인들에게 알리고자 이 게임을 제작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지구의 과학자들은 『삼체』의 외계 문명에서와 다르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역사적으로 지식은 정치적·자연적 세계에 대한 과학을 구축하는 데 성공과 실패를 반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운명을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지구라는 행성이 거주할 만한 곳인지 판단하는 일은 언제나 일정 수준 이상의 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과학에 의존해 왔다.

과학사 연구자 아비바 로스먼(Aviva Rothman)의 저서, 『조화의 추구: 케플러의 우주, 신앙, 공동체(*The Pursuit of Harmony: Kepler on Cosmos, Confession, and Community*)』는 지구상의 인간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지

* 서평을 작성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신 최석현, 조장현 선생님과 “ZAK/SIM”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lollaerd@snu.ac.kr

식을 구축하려 노력했던 한 시대에 관한 탐구의 결과물이다. 로스먼은 “조화(harmony)” 개념을 중심으로 케플러의 과학적·정치적·종교적 신념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과학사와 정치사상사의 최근 연구를 종합했다는 점에서, 로스먼의 연구는 근세 유럽 지성사 전반에 대한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과학혁명 서사에서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 1571-1630)는 지구중심설의 오류를 밝히고 태양중심설을 도입함으로써 근대 과학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영웅으로 그려진다. 반면 로스먼은 케플러의 “비과학적” 측면, 예컨대 정치와 종교에 관한 논의에 주목하면서 일견 이질적으로 보이는 케플러 자신의 저술들을 정합적으로 종합할 뿐만 아니라 근세 유럽에서 과학 지식, 즉 “스키엔티아(scientia)”를 구축하고 확산하는 일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떠한 자원을 동원하는 일이었는지 자세히 보여준다.

로스먼의 책은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서 저자는 케플러가 루터파 신자임에도 칼뱅파 성체 성사를 수용한 것이 자연 세계에 대한 그의 형이상학적·수학적 이해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다음 장은 가톨릭, 특히 예수회에 대한 케플러의 관용적이고 융통성 있는 태도를 다룬다. 3장에서는 새로운 과학을 전파하고 더 많은 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케플러가 어떤 수사학적 기법들을 활용했는지를 탐구하며, 뒤이은 4장에서는 케플러가 신앙의 문제와 관련하여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 수사학이라는 수단을 채택했다는 점을 논한다. 5장은 케플러의 정치관, 특히 16세기 프랑스 학자 장 보댕(Jean Bodin, 1530-1596)의 조화 개념에 대한 비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책의 6장에서 로스먼은 케플러가 수학자라는 직업을 정치적 당파성과 종교적 편견을 넘어서는 일종의 중재자로서 새롭게 정의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그간 과학사학자들은 케플러가 신교도였음에도 그레고리력을 받아들인 것을 그가 종교적 신념보다 과학적 진리를 우선시켰다는 증거로 해석했다. 신교도들은 일반적으로 교황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레고리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먼은 케플러가 개혁을 끝이곧대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그가 그레고리력을 옹호한 것은 실질적인 수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로스먼은 케플러에 대한 오해가 “케플러의 생애에서 신학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지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234). 로스먼은 자연과학을 다른 형태의 지식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는, 19세기에 형성되어 널리 퍼졌으나 오해의 여지가 많은 분과

학문 사이의 위계질서가 케플러가 발전시킨 과학 지식, 그의 의도, 그리고 그 업적의 의의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케플러에 대한 해설과 차별점을 가진다. 그러나 『조화의 추구』의 차별성은 달력에 대한 케플러의 미출간 대화록을 검토하면서 이 천문학자의 의도가 오직 보편적 적용 가능성, 객관성, 비당파성(unpartheylichkeit)을 갖춘 수학만이 “종파 간 소통과 협력의 모범”이요 “대형 종파 간 화해의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서 그친다(252). 이러한 해석은 케플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배치됨에도 과학 지식의 우월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레고리력을 받아들였다는 기존의 해석, 그러니까 애초에 로스먼이 반박하려 했던 해석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개력 논쟁의 핵심 논점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 의해 “춘분 직후 첫 보름 이후의 첫 일요일”로 규정된 부활절의 날짜를 특정하는 데 있었다(230). 저자가 기독교 공동체, 즉 코르푸스 크리스티아눔(corpus Christianum) 전체의 구원을 위해 천체의 운동을 통해 부활절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일이 중요했다는 점은 물론, 이 주제에 관한 케플러의 견해와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했다는 점이 아쉽다.

마찬가지로, 보맹이 조화적 정의(harmonic justice)를 수열로서 제시한 것에 대한 케플러의 비판을 다루는 부분에서 저자가 몇 가지 세부사항을 놓치고 있다는 아쉬움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수학적으로 표현된 보맹의 세 가지 조화, 즉 산술적·기하적·조화적 정의 개념을 자연철학의 역사라는 맥락 안에서 해석한 점은 인상적이다. 저자는 피타고라스주의에서 시작해 플라톤과 보에티우스에 의해 발전된 조화/화음(harmony) 전통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수학적 규칙을 따르며 음악을 만들어내는 천체의 운동과 관련된 조화/화음 개념은 곧 인간이 모방해야 하는 도덕적·정치적 이상으로 확장되었다. 로스먼은 “조화에 대한 모든 호소”가 “다양성을 포용”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포용은 결코 “무제한적”이거나 위계 없는 포용이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10). 하지만 로스먼의 저서는 정치사상 분야의 보맹 연구자들이 최근에 내놓은 연구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로스먼은 보맹과 케플러의 조화론을 비교하면서, 보맹이 조화적 비율은 산술적 비율과 기하적 비율, 그러니까 교환적(commutative) 정의(평등성, equality)와 분배적(distributive) 정의(유사성, similarity)의 조합이라고 주장했다면, 케플러는 “조화적 정의는 … 그 자체의 척도(merits)

위에 서야 하는 것”으로 두 수열 또는 비율의 합과 구별된다고 주장했다고 서술한다(212). 그런 다음 로스먼은 보댕에 비해 케플러는 “어떤 종류의 통치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모호”(213)했으며, “케플러의 정치적 조화 개념은 다양한 잠재적 [정치] 모델을 포괄”(216)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점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댕 또한 명확히 정의된 특정한 정부 유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보댕은 특정한 정부 형태를 이상화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이론의 범용성을 축소시킨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바 있다. 특히, 보댕은 스스로를 절대주의자 또는 절대 왕정의 지지자로 여기지 않았다. 로스먼이 가정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말이다. 최근 정치사상사 연구자들은 보댕이 절대적 주권(absolute sovereignty) 개념을 발전시킨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¹ 통치자의 사익보다 일반 대중의 복리에 초점을 맞춘 조화적 정의에 대한 보댕의 지향은 케플러의 전망과도 일맥상통했다. 한편으로는 케플러 고유의 정치 이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없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타 분야의 최신 연구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기에, 이 책에서 보댕과 케플러 사이의 차이는 결국 불분명한 형태로 남고 말았다.

그럼에도 『조화의 추구』는 과학사, 정치사상사, 자연철학사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방대한 사료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종합함으로써 근세 유럽에서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가에 대한 더욱 정확한 역사적 이해에 한 발짝 다가섰다.

¹ 이러한 연구 성과를 집약한 대표적인 저술로 Daniel Lee, *Right of Sovereignty: Jean Bodin on the Sovereign State and the Laws of 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참조. 국내 문헌으로는 오항미, “장 보댕의 주권론: 절대적 주권의 내적 논리”, 『국제정치논총』 53:3 (2013), 9-38을 참조.